

어느 호텔건물들과 차별화된 기하학적 형태의 현대식 건물외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응용한 주변 환경.....

‘자연과 과학의 절묘한 만남으로 조화의 멋을 느끼게 하는 호텔’ 이것이 호텔 인터불고의 첫인상이다. 2001년 5월에 개관한 호텔 인터불고는 외부에서의 첫인상만큼이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친절 한 직원들을 보면서 방재와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지 기대를 가지고 탐방을 시작했다.

**호텔현황** 금호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호텔 인터불고(Hotel Interburgo)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관된 특1급 수준의 호텔로, 주변에 위치한 영남 제1관문, 강으로 떨어지는 인공폭포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호텔의 품격을 한층 높여 준다. 조금은 낯선 듯한 ‘인터불고(Inter Burgo)’란 단어는 스페인어로 ‘화목한 작은 마을’이란 의미로서, 이러한 호텔 인터불고의 분위기를

대변해 준다.

수성구에 터를 잡고 지난 5월에 개관한 호텔 인터불고는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에 대지면적 8,640평, 연면적 13,000평의 건물로 총 20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 지역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려면 우선 수준높은 호텔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불고의 권영호 회장은 지역봉사 차원에서 고속도로 주변, 과거 우범지역이었던 곳에 호텔을 짓고, ‘한 치의 틈도 방관하지 말고, 남다르게 이룩하자’는 motto 아래 직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한다.

카펫과 조명, 권 회장이 직접 고른 여러 그림 등 작은 소품에까지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느낌의 실내는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기능적인 면도 고려하여 건물 4층과 5층의 일부 객실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 핸들을 설치하고 문틀을 없애는 등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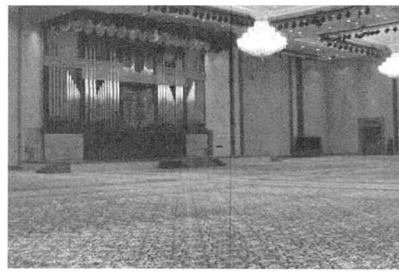
“한 치의 틈도 방관하지 말고, 남다르게 이룩하자”

# Hotel Interburgo

이미숙 | 경영기획부 홍보팀



Hotel Interburgo 전경



국내 최대규모의 컨벤션홀

홀(2,500명 수용 가능)은 호텔 인터블고의 자랑거리로서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을 위한 자리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호텔 내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실내수영장, 최첨단 장비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페인관 및 각종 식당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소방시설** \_\_\_\_\_ 호텔 인터블고는 경영진이 '소방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 소방 시설에 관한 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하여 설계 시 방화구역이나 제연설비는 건축·소방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설계하였고, 방화전문가가 항상 컨설턴트로서 설계에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물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호텔 인터블고는 가장 중요한 것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로비에서도 금방 찾을 수 있게 눈에 띄도록 배치하였다.

630평 규모의 컨벤션홀에는 무려 300개 이상의 아날로그 감지기를 부착하였고, 객실에도 아날로그 감지기를 부착하여 자세한 공기오염도 및 화재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발생 시 감지기의 정확한 동작위치도 알 수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실 내부에 피난경로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 객실의 경우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상구와의 동선을 최소화하였다.

법이 허락하는 한 최상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호텔 인터블고는 직원들의 화재예방교육 역시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업장 특성상 업무별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규칙을 매일 강조하고 있다. 연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며, 3개월에 한번씩

도상훈련을 거쳐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예방은 방화관리자 혼자만의 일이 아닌 전 직원이 관리하고 주의하여야 하는 과제로, 평소 화재원인을 제거하고자 전 영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여 화재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방화관리자는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협회에 한 말씀...** \_\_\_\_\_ 개관 후 2001년 8월에 처음으로 협회의 안전점검을 받은 호텔 인터블고는 앞으로 자체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안전관리업무를 해 오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에 관해 묻자 '소방기구의 일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호텔 인터블고의 방화관리자는 소방에 관련된 건축 분야를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그리하여 기계, 전기, 소방, 건축을 모두 종합하고, 이것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한편 협회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하였다. 그러나 소방이나 화재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때, 협회 홈페이지보다는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찾게 되며 협회 홈페이지에 소방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없음을 아쉬워 하였다.

“한 치의 틈도 방관하지 말고, 남다르게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고객안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경영진과 실력을 키우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방화관리자를 보면서 호텔 인터블고를 찾는 고객의 안전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구나라고 느끼며 짧은 탐방을 마쳤다. (㉞)